

월/요/광/장

김유선



총선 다음날 만난 학생에게 투표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씩씩하게 “아니요”라고 한다. 당연하다는 의미가 내포된 음색이다. 사는 곳에서 누가 후보로 나왔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 역시 당당하다.

이유를 물으니 “저는 정치에 관심없어요” 하며 묻는 교수를 이상하게 보는 눈치다. “정치적 야망이라도 있으세요”라고 묻는 얼굴이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터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다. 투표 불참 54% 중, 20대의 한 유형이다.

그 학생은 자주 지각하는 패거리 중 한 명이다. 서너 명 친한 친구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각하거나 결석을 한다. 전철역에서 만나 함께 온다니, 으레 한 명은 이래저래 좀 늦게 터지며 지각 안 하는 일이 더 힘들거니와 할 것이다.

이 지각 패거리의 특징은 학교 규칙이나 훈계보다 의리를 더 우선시하며, 다른 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MT를 가도 한 명이 안 가면 다 함께 안 간다. 패거리에게 이견이나 개인행동은 배반이

다. 탈퇴를 하면 존재에 대한 불만 공포의 착시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집단문화의 병폐다.

“패거리”는 좋지 못한 일로 한테 어울리

패거리 뛰어넘는 정치 패야

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관청에서 함께 번을 서는 40여명의 한 무리 조를 ‘패(牌)’라고 하는 어원에서 요즘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집단을 지칭한다.

각 언론의 토론회는 이분법으로 작당을 시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도록 부추긴다. 반대를 위한 억지 이론을 펼치기가 싫어 방송 출연을 거절한다는 소신 있는 교수도 있다. 악플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하게 하는 사이버의 패거리는 심각하다. 얼굴도 연령도 신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찬반의 의견대립이 폭언으로 바뀐다. 소위 사이버 부족주의(cyber tribalism)의

패 싸움판이다. 원시 부족사회의 싸움이 그렇지 않았던가. 디지털시대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은 여전히 원시적이다. 잠재적 객관적 논리를 펼치면 공자나 맹자나며 순식간에 댓글의 폭풍 때문에 객관적 논객은 아예 피해버린다. ‘작축(作逐)’이라는 패거리의 유언에서 보면 몰아내는 것을 이루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인지 패거리는 패거리를 거부한다.

비슷한 세력끼리 있으면 싸움이 생긴다. 강한 한 사람을 핵으로 하여 주변에 약한 무리가 집결하는 것도 패거리 문화의

수준으로 격하한다는 말 그대로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우수한테 의리나 결속이라는 미명 하에 우수한 능력이 말소되거나 사적 손실이다. 집단주의의 무서운 얼굴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패거리 싸움이 여전했다. 팬클럽에 가까운 당을 조직하고 지역의 경계 짓기를 부추기는 총선이었다. 총선 결과는 투표권자 40%대의 의견일 뿐이며 이미 유권자는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준비의 시작이다.

당선자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한 패거리 싸움을 시작하는 시간에 유권자들의 드라이버에는 평점이 누적으로 입력되고 있는 것이다. 누계에 염증을 느껴면 정치의 무관심, 무참하며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봄꽃으로 산아가 아름답다. 한두 달 후면 수입줄 슈퍼 잡종들의 패거리들이 강산을 덮으려다. 객관적 사고의 야생화를 밟히고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리려는 잡종 패거리들의 횡포를 보면 패거리 싸움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다. 잡초더미를 비집고 올라온 원추리를 보면서 패거리를 뛰어넘는 소신과 용기의 정치가를 갈망해 보는 볼 한나절이다.

〈장안대 교수·여성문제연구소 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AI 방역 지자체에만 맡길 일인가

전남 지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됐다. 특히 영암 지역 고병원성 AI는 감염 경로마저 전혀 파악되지 않아 AI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영암군 신북면 이모씨 농장에서 발생한 닭의 집단폐사 원인이 고병원성(형질형 H5N1) AI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영암지역의 AI는 초기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에서 100km 이상 떨어진데다 나주 도축장 수송차량의 이동 경로에서도 벗어나 있어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영암 시종면, 무안 현경·운남면 등에서 AI 의심사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의 AI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AI 방역작업을 지자체에만 맡기고 뒷집만 지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24

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살처분 등 방역활동은 일반인들이 나서기를 꺼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부족으로 방역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AI는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방역 등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과 함께 일단 감염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지원만 하고 방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다. 방역활동에 인력 및 약품 확보는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AI 관리·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가 발병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발병 원인 규명과 방역 인력 및 약품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합정치·경제 살리기’ 다짐한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4·9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심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친이(親李)-친박(親朴) 세력’ 갈등이 심화됐다. 적지 않은 의석을 차지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도 부담이다. 이런 현실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계보정치의 청산

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협과 통합의 정치는 여권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스스로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정치 경쟁자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경쟁자는 외국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친이’와 ‘친박’을 벗어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려면 건전한

한 여야관계는 필수적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정 동반자는 친박연대가 아니라 통합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끌어안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열원은 간절하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펼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는 안락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대통령부터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

無等鼓

예카테리나(1762~1796년 재위) 여제는 표트르 대제와 함께 러시아 근대화화를 연 개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독일 출신)이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병약한 남편에 이어 황제로 등극했다. 물론 남권을 독살하고 수십명의 애인을 두었다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군인이자 정치가인 포툼킨은 예카테리나의 애인 중 한 명이었다. 수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포툼킨은 지나친 과시욕과 몽상가적 기질로 뽕뽕 뽕뽕 처한 사나이였다.

그가 러시아의 변방, 우크라이나 식민지를 추진하고 있을 때 예카테리나가 순시를 왔다. 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사업에 기획했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접한 마을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끌어버리고 걸반 번지르한 마을을 조작해 버린 것이다.

이후 ‘포툼킨의 마을’(Potyomkin's Village)은 걸치레만의 화려함을 비꼬는 고우명사가 됐다.

최고 국토해양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 220대만 통과하

는 틀게이트가 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전국의 틀게이트를 뒤졌지만 꼭 맞는 틀게이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 수도권 끝에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 틀게이트가 지목됐다. 이 틀게이트의 하루 통과차량은 280여대로 전국 최하위. 같은 고속도로 동함평, 일로 틀게이트도 통행량이 적은 상위 틀게이트로 꼽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알다시피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통행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틀게이트를 유지

하는 한바탕 소동을 피운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포툼킨의 마을’은 많다. 권위주의 시절 통치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민통산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뿌리없는 나무를 박아 놓기도 했다. 틀게이트 해프닝을 보면서 새삼 ‘포툼킨의 마을’을 생각해본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기고

임상중



요즘 “글로벌 보릿고개”, “에그플레이션”(농업+인플레이션·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그레인 쇼크” 등 농업과 관련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어 농업정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까? 곧 진정되고 해결되기를 할 것인가?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성장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는 식량 소비와 특히 육류 소비 증대로 사료용 곡물의 급격한 수요를 수반했고, 또한 오일가격 상승 및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연료로 주목받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료용 곡

물 생산의 중요한 지역이다.

겨울철 논을 활용한 조사료 전용 청보리 품종은 조사료 생산대책으로 이미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청보리를 10만 ha까지 확대재배 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우리의 환경에서 겨울철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사료값 절감의 혜택을, 국민에게는 연중 푸른 들과 양질의 육류를 제공할 것이

곡물자급도 향상을 위한 호남의 역할

수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식량 자급률은 어떠한가? 미국(134%), 영국(112%), 캐나다(165%), 프랑스(191%), 독일(126%), 스웨덴(120%) 등 거의 모든 OECD 선진국들은 100%를 훨씬 상회하는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8%(쌀 98.9%, 보리 46.5%, 콩 13.8%, 밀 0.2%) 수준으로 이중 쌀을 제외할 경우 5%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아닐 수 없다.

이웃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 내외지만, 일본은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2015년까지 45%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OECD 선진국들 모두가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순신의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

家)”라는 말 속에서 우려를 해소시킬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호남의 경작지는 전국의 약 44%이고 이 중 52% 이상이 논으로 비뿐만 아니라 보리, 콩, 밀 재배가 가능해 과거부터 우리 국민 절반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곡물 생산의 중요한 지역이다.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둔 추고도 식량을 사지 못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곡물자급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호남지역의 농민, 농업 관계자와 국가 연구기관이 함께 호흡할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호남농업연구소 소장〉

불법개조 차량 잦은 고장, 대형사고 우려

며칠 전 뒤에 오던 승용차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사전에 충분히 밟았는데 왜 차가 멈춰서지 않았는지 모르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고가 크지 않아 필자는 병원에 입원할 안하고 법피도 깨지지 않아 조심조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냈지만 그 운전자의 해어지면서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일반 승용차를 LPG차로 개조해서 운행중이었던 것이다.

차를 불법으로 개조했으니 그게 운전자를

못해 시동이 종종 꺼지고 가스가 새는 등 결함이 자주 발생했던 모양이다. 결국은 내 차를 뒤에서 부딪힌 것도 순간적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 작동을 막은 듯했다.

현행 법규상 LPG차량 개조가 가능한 차의 종류는 7인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차,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렌터카, 택시와 같은 사업을 차량과 화물 수송용 차량이다. 요즘 기름값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 불법 LPG 개조 차량이 유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차량고장으로 이어져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법조칼럼

양형권



형사 단독 재판을 맡다 보니 약식명령(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무거우니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정식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및 벌금액이 정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벌금을 분납하는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 번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였기 때문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필자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벌금이 적정하다고 설명하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한 모델에 있는데, 빈 방이 없어 다른 모델로 이

“판사님, 벌금 좀 깎아주세요”

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은 난감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

얼마전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 200만원이 많으며 정식재판 청구를 한 피고인의 경우 한눈에 보아도 얼굴에 병색이 안연했다.

범죄사실은 ‘몇 년 전 누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해 권취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당장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위에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같은 방법을 도운 돈을 마련 치료를 받았으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범행 직후 위와 같은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에 부합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판검사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했던지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춰 구형했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벌금을 면해 주려는 생각이었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어 벌금

동하기 위해 30m도 안 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중 단속됐다”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 벌금을 낼 형편도 안 된다”는 읍소도 곁들였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 주장대로 음주운전 단속 직전에 대리운전을 통해 모델까지 갔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짧은 거리나마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벌금을 깎아(?)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위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처지가 어렵다며 벌금을 깎아(?) 달라는 피고인들을 대하면 필자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이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이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곤 한다.

“벌금을 내고는 싶지만 일이 없는데 어렵해요. 판사님, 벌금 좀 깎아 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피고인들을 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기가 확 풀렸으면 좋겠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도마·행주 세균에 취약...주방위생 철저히

얼마전 TV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눈여겨 봤더니 가정의 신발장, 화장실 변기, 주방(도마·행주)중 도마와 행주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도마에서 검출된 세균은 폐렴과 뇌막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주부들은 도마의 넓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당한 물로 행구는 정도다. 세균은 우리나 사기제품이고 부피도 작아 맛을 묻혀 깨끗이 씻어내지만 도마는 부피가 커 씻기

가 쉽지 않다. 그러면 도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우선 세제로 잘 닦은 뒤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햇볕이 드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특히 주말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장시간 햇볕에 노출시켜 자외선 살균을 하면 좋다. 행주는 깨끗이 빨아내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가열하면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나윤성·광주시 남구 봉선2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227-01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어문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